

科學技術處發足10周年

—第10回 科學의 날—

科學技術處發足日

4月21日을「科學의 날」로

지난 4월 21일로 科學技術處가發足한지 10周年이었다.

科學技術處가發足한 것은 1967年 4月 21日이다. 이날을紀念하여 이듬해부터 갖기始作한「科學의 날」行事도 이번으로 第10회가 된다. 10년이면 江山도變한다는 말이 있다. 江山도變한다는 말은 10個星期이고 보면發展의 기틀을 잡으려고 全力을 기울인 우리 科學技術界 역시 짧지않은 그동안에 큰變貌를 보이게 됐음을 말한 것도 없는 일. 때마침 10周年은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第1次年度부터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第1次年度부터 第1次年度에 이르는 期間, 期間에 우리의 經濟가 劃期的인發展을 이룩한 것과軌를 같이하여 우리의 科學技術은 눈부신發展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난 10年間, 우리 科學技術界가 보인變貌는 어떠한 것인가. 科學技術處의業績을 中心으로 몇가지 數字를 갖고 알아 보기로 한다.

지난 66年末의 우리나라 總

出高는 約 2億 6千萬弗였고 1人當國民所得은 130, 8弗였다. 그것이 76年末에 는 輸出高가 約 81億弗로 늘 어났고 1人當國民所得은 6 9.8弗로 增加했다.

우리의 經濟가 先進工業國으로 받들음하기 위해 努力하는 사이에 우리의 科學技術은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면서 눈부신發展을 거듭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 속의 獨立된 科學行政機構로서 67年 4月 21日에發足한 科學技術處가 諸般施策을 통해 크게 寄與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科學技術處는 70年代 科學技術의 基本方向으로서 科學技術基盤의 構築, 産業技術의 發展, 科學技術風土의 造成이라는 三大方向을 設定, 積極的으로 施策을 펴온 結果, 이제 는 우리의 科學技術의 經濟成長을 先導할수 있는 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0年 동안 科學技術處 職員數는 約 2, 6倍로 늘어났다. 이것은 70年代에 들어서 나타난 新設機構 때문이다. 그중 韓國原子力研究

所는 原子力廳이 廢止됨에 따라 새로 생긴 特殊法人體로서 原子力廳의 原子力研究所와는 別個의 機構이다.

그리고 科學技術處關係豫算은 67年發足當時의 約 17億이 76년에는 約 1百20億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科學技術人力分野의 趨勢를 보면 科學技術處가 樹立한 長期人力需給推計 및 政策方向에 따르면 67년에는 科學技術者 萬 4千명 技術工 5萬 6千명, 技能工 27萬 3千명 등 都合 34萬 3千명이었다. 그것이 76년에는 科學技術者 5萬 4千명

技術工 12萬 8千명, 技能工 87萬 4千명 등 105萬 6千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研究員數의 轉移를 보면 66年의 2千 9百 26명이 75年엔 1萬 2百 75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博士 및 名譽 博士 轉移는 <表 1>과 같고 技術士의 增加現況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科學技術處에서 벌인 在外韓國人 科學技術者 誘致 實態는 <表 3>과 같고 分野別, 年度別 海外派遣 實態는 <表 4>에 나타나 있다.

博士學位所持者 現況

<表 1>

年度別 分野別	48~66累計 (A)	67~76累計 (B)	計	增 減 (A-B)	備考
理 學	58 (17)		363 (53)	247 (19)	
工 學	19 (10)	325 (16)	344 (26)	306 (6)	
藥 學	22	125 (2)	147 (2)	103 (2)	
醫 學	1,536 (7)	2,825 (7)	4,364 (14)	1,292	
農 學	51 (15)	248 (15)	299 (30)	197	
獸醫學	8 (1)	25 (1)	33 (2)	17	
計	1,694 (50)	3,856 (77)	5,550 (117)	2,162 (27)	